

여수박람회장 민간 매각 반대 여론 높아져

여수시의회, '매각 중단 건의문' 중앙부처·국회 발송 신복항·크루즈 부두 등 배후부지 공공시설 활용해야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경제는 물론 여수시의회까지 여수박람회장 측의 민간매각과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2일 서완석 의장 등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박람회장 민간매각 반대 의원 21명이 서명한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중단 건의문'을 기재부와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발송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여수시민과 남해안권 주민들이 이뤄낸 값지고 자랑스러운 성과"

라며 "당초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남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사후활용 약속과 달리 박람회장 민간 매각 방침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그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의 염원에 반한 큰 민간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수 신복항을 비롯한 박람회장 친수 공간은 크루즈 부두 활성화에 대비, 크루즈 터미널과 국제여객선, 부두 시설 등 통합개발 배후부지 마련을 위한 해양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지정 구역 확보가 되어야 한다"며 "일반 면

세점과 관광객 편의시설, 남해안 권 및 국제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관광센터 건립 등 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 클러스트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권오봉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공성이 포함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안을 마련, '여수선언' 실현 및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국가 계획 확정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현재 여수 박람회장은 엠블호텔과 수익형 숙박시설 등 이미 3곳이 들어서 있어 여수시가 밝힌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민간 매각 방식보다 일본·중국 정기 여객선과 크루즈 유치 등을 위한 통합 공공항만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미래 먹거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람

회 정신에도 부합된다"며 "특히 기존 용도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여수시장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말 개정된 여수세계박람회법에 따라 신복항과 크루즈 등 공공시설의 부두 배후시설 마련을 위한 용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어 "실제 정부가 엄청난 국비를 들여 만든 여수 신복항과 크루즈 부두 등 공공 시설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현재 여수-제주간 국제여객선과 크루즈 부두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매각 중단과 항만시설 부지활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5월 초 박람회 재단측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남원 춘향골 하우스 복숭아 첫 수확

22농가 15억원 수익 기대

남원 명물인 춘향골 복숭아가 수확을 시작했다. (사진)

28일 남원시에 따르면 첫 출하될 춘향골 복숭아는 백도품종으로 금지면 입암리의 안흥농장 4000여㎡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물량이다.

이 곳에서 재배된 복숭아는 춘향골 복숭아 상표로 전라 서울 가락동농산물 시장에 출하된다.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으로 가격은 2.5kg 상품이 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설하우스 복숭아 재배는 남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남원에서는 올해 22농가가 10ha에서 2.5kg들이 5만여 상자를 수확돼 14억~15억원의 조수익이 기대된다. 수확은 6월 초까지 가능하다.

시설재배 복숭아는 노지재배와 달리

휴면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기별 온도와 수분관리 등 고도의 재배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비를 자당해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어 고품질 복숭아로 유명하다.

또 남원에서는 춘향골 노지 복숭아도 261농가가 310ha를 재배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 복숭아 조수익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골 복숭아가 맛이 뛰어난 것은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 농가의 뛰어난 재배 기술이 어우러져 아삭한 식감과 당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복숭아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기술지도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영암군, 지역 현안사업 해결 '팔 걷었다'

전동평 군수, 박양우 문체부장관 찾아 대규모 사업 협조 요청

영암군이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전동평 군수 등 군 관계자들이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건의했다. (사진)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월출산 총천 100힐링파크 조성(130억원)과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2500억원)으로 총 사업비 2630억원의 대규모 사업들이다.

월출산 총천 100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한국트러스트가요센터 개관과 함께 영암을 대표하는 월출산 기차랜드 일원에 힐링을 위한 강연장, 음식점의점, 특산품 장터 등

을 건립하여 영암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힐링 충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2500억원)이 영암 시종면 소재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수립·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며 "남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사랑의 손길' 펴는 전남동부라이온스클럽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에 '푸드트럭' 전달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에 사랑의 손길이 담긴 푸드트럭이 전달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지구총재 조영일)인 전남동부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20일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에 3000만원 상당의 커피 푸드 트럭 1대를 기증했다. (사진)

이번 사랑의 푸드 트럭은 지역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바라는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랑나눔으로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은 푸드 트럭을 바리스타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영일 총재는 "전남동부라이온스클럽

회원 한분 한분의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이 장애인재활자립장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여수시 화장동에 확장 이전한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은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보조금과 이동길(주)대아전력 대표의 후원으로 준공된 자립장은 연면적 485㎡ 건물로 작업장과 상담실,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농번기 일손 돕는 공동취사장 강진농협, 10년째 운영 '인기'

강진농협이 10년째 농번기 공동취사장을 운영하고 있어 농가 노동력 부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사장은 노동력이 부족한 바쁜 농사철에 취사 부담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사꾼의 농사정보 교류를 주고 받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읍 부춘리 마을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취사장은 농업부녀회와 농협 직원들이 직접 식단을 마련하고 농민들이 편한 점심식사를 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옥태 강진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는 당연한 일이다"며 "10년 동안 운영하며 조합원의 신뢰

도를 쌓은 만큼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300여 명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취사장은 17일간 5000여명의 이용이 예상되며 다음달 9일 까지 운영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